

暗黑期의 “國民詩”

—親日御用詩에 대하여—

吳世榮*

1

일제 식민지 아래서의 우리 문학은 그 어느 때나 일제의 국책을 따르도록 강요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특히 1941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부터는 그 탄압의 정도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국내에서는 전시 국민 총동원 체제가 확립되었고 한국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한국어로 쓰인 언론 매체의 폐간이 뒤 따르게 되었다. 文學 작품 역시 일본의 국책——소위 皇道思想의 선양과, 內鮮一體의 실현 및 한 민족의 전쟁 동원——을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 발표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잡지와 신문에서 한글이 사용되고 순수 문학 작품도 극 소수 실리긴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日本語에 무식한 대중의 점진적 교화”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복인된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日本語로 일본의 국책을 작품화한 것이 아니면 일체의 문단적 공인이나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때로는 탄압을 견디지 못해, 때로는 옳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해, 또 때로는 개인적 영달과 출세욕에 사로잡혀 대부분의 문인이 일제 어용문학에 참여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들 자신은 일제 어용문학을 소위 “國民文學”이라 불렀는데 이 용어는 1941년 日帝가 순수 문예지를 폐간 시키고 그들의 국책을 선전할 목적으로 《人文評論》을 《國民文學》이라 개칭하면서 일반화되었다.¹⁾ 이 잡지의 주간인 평론가 崔載瑞가 “國民文學”的 이론을 맡게 되자 이 친일 어용의 반 민족 문학 운동은 먼저 평론계에서부터 활발하게 거론되고 이어서 수필, 기행문, 보도문 따위에서 실천되다가 드디어 1942년을 고비로 해서 詩와 소설 등 창작계에까지 전면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원래 “國民詩”란 명칭은 太平洋 전쟁의 발발과 함께 日本國內에서 전시 동원을 내용으로 한 시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 땅에서도 그대로 차용되어 소위 “國民文學”的 이념으로 쓰여진 시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제 1940년대 ‘국민시’——日帝御用詩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日帝 御用詩란 순수문학이 아니고 일종의 목적문학인 까닭에 그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시기 “國民詩”的 창작 의도는 대개 다섯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內鮮一體”와 “皇道思想”的 고취이다. 이는 한민족의 주체성을 균원적으로 부정하여 한민족을 日本에 영구히 부속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는 태평양 전쟁의 합리화와 전의 고취이다. 이는 저들의 식민지 꽁창주의를 東洋解放이라 미화하여 침략전쟁을 정당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를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는 일종의 기념시로서 승전의 축하이다. 넷째는 전쟁 영웅의 친양이다. 따라서 셋째 유형이 기념시의 성격을 띠었다면 넷째

1) 이 문제에 관하여는拙稿「1940년대의 詩와 그 인식」『韓國現代詩史研究』(一志社, 1983) 참조.

유형은 찬가의 성격을 띠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는 한민족의 전쟁 동원을 위해서 징병, 징용을 선전하고 학도병의 지원 입대를 강요하려는 목적이다. 이제 이와같은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内鮮一體와 皇道思想의 고취

이 계열에 내포되는 대표적 작품으로서는 楊明文의 〈富士山に寄す〉(부사산에 부친다《國民文學》43. 2), 金龍濟의 〈非時香菓〉(《國民文學》44. 4), 〈敍事詩御東征〉(《綠旗》43.2), 〈不文の 道〉(不文의 道《國民文學》43.1) 〈內鮮一體の歌〉(内鮮一體의 노래 《東洋之光》39. 4), 〈從弟に〉(從弟에게 《東洋之光》39. 4), 등 金鍾漢의 〈龍飛御天歌〉(《新時代》44. 1), 〈園丁〉(《國民文學》42. 1), 〈風俗〉(《國民文學》42. 5. 6), 朱耀翰의 〈同意語〉(《新時代》44. 5), 〈雨後〉(《新時代》44. 5), 李光洙의 〈어버이〉, 〈우리집의 노래〉(《新時代》41. 1), 〈새해〉(《毎日新報》44. 1. 1), 〈새해의 祈願〉(《新時代》44. 2), 등이 있다.

당신의 聖스러움

당신의 頂上을 걸으면서

나는 지금 알았습니다.
.....

당신에겐 초월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징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당신의 모습,

오오 위대하신 초월해 계신 당신

지금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

당신은 항상 위대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가진 우리들,

항상 당신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

먼먼 차손 대대로 흘러온 풋줄이 용솟음쳐
당신을 그리워하여 당신의 靈氣에 감축합니다.

태평양을 보고 지키는 당신,
당신은 강하고 아름답고 정의롭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抄譯, 楊明文 〈富士山에 불인다〉)

垂仁天皇이 다스린지 3년。
天日槍이라고 하는 新羅의 王子
해뜨는 동쪽을 향하여
바닷물 몇겹 몇길 조각배로 떠돌아
播磨國의 穴粟邑에 닿아서 보니
때는 아름다운 春三月
.....

天日槍이 바라는
살기 좋은 땅을 뜻대로 허락하여
.....
그의 玄孫이 田道間字여라

天皇 90 年 봄 2 月에
田道間字를 常世國에 보내어
非時香菓(不老草와 같은 파실 譯者註)를 구해오도록 하니
신하는 어명을 받들어 길을 떠났다.
.....

아아 우리 임금님께선
纏向宮에서 돌아가셨어라
저 田道間守의 復命
마침내 듣진 못하고 가셨어라.
.....

아 충성스러운 죽음이어, 田道間守의 魂魄이여 (抄譯, 金龍濟 〈非時香菓〉)

京城이라 불리는 서울이
한개의 커다란 심장이 되어
合掌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경건한 이 순간을

민 전쟁터에서도 푸임처럼
 불을 토하고 떨어져 간 비행기가 있겠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英靈들은
 새로운 이 풍속에 미소짓겠지
 버들 우거진 銀座에서도 볼 수 없는,
 물론 京都에서도 볼 수 없는
 밀레의 그림보다도 더욱 그윽한
 이 순간의 경건함이여 (抄譯, 金鍾漢<風俗>)

해목은 둘째나무에 園丁은
 능금의 어린싹을 접목하였다.

「그런 일이 성공할까요」
 하면서 원정의 아내는 저녁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해목은 둘째나무에는 추억처럼
 능금의 불이 가지를 휘일 듯 빛나고 있었다.
 「그런 일도 성공하는군요」
 원정의 아내도 지금은 죽고 없다.
 (抄譯, 林鍾國 金鍾漢<園丁>)

楊明文의 <富士山에 부친다>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는 직접적으로 日帝를 찬양하지는 않았으나 日本人들이 聖山이라고 부르는 富士山을 象徴化시켜 皇道精神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한마디로 여기서 富士山은 日本精神과 그것의 人間的化身으로 간주되는 天皇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제 4연에서 “당신에게 초월이 있고／ 당신에게 상징이 있다”는 말과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당신과 함께 되기를 바란다”는 진술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太平洋을 보고 지키시는 당신”과 “항상 강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당신”은 太平洋 전쟁이라는 “聖戰”을 일으켜 정의를 수호하는 日本이 되는 것이다.

金龍濟는 아마도 朱耀翰, 金鍾漢과 더불어 가장 화려하게 親日 御用詩의 작자로 각광을 받은 시인일 것이다. 그는 日本語로 쓴 親日詩集『敍事詩御東征』(1943. 5), 『亞細亞詩集』(1942. 12), 『報道詩帖』(1944. 6) 등을 간행한 바 있고 또 『亞細亞詩集』으로 1943년 “國語文藝總督賞”을 수상한 바도 있다. “天皇精神”을 기리고 “內鮮日體”를 독려하기 위해 神武天皇의 “御行蹟”을 『日本書記』에서 취재 詩化한 長詩『敍事詩御東征』도²⁾ 암권이지만 여기 인용한 〈非時香菓〉역시 그에 봇지 않다. “非時香菓”란 무엇인가, 한자 뜻대로 풀이하자면 “제 칠에 나지 않는 과실”이 되겠지만 이 시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非時香菓”가 日本의 신화에서 일종의 不老草와 같은 신령스러운 과실이기 때문이다. 작품 〈非時香菓〉는 日本의 史書에 등장하는 한 說話를 시로 쓴 것인데³⁾ 그 副題 “田道間守의 系譜를 생각함”에서 암시 받을 수 있듯이 한민족의 일본 복속과 天皇에 대한 충성심을 신화적 이야기로 날조 합리화시킨 것이다.

『古事記』에 의하면 日本歷史上 불멸의 충신 田道間守는 신라 사람의 후손이라고 한다. 〈非時香菓〉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古事記』에 의하면 田道間守의 四代祖 天日槍은 본래 新羅의 王으로 “聖皇이 계신” 日本國을 동경한 나머지 나라를 동생에게 양위하고 垂仁天皇 즉위 3년에 日本으로 건너와서 天皇의 신하가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家系를 지닌 田道間守 역시 天皇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어느날(“天皇 즉위 90년 봄 2월에”) 天皇의 명령을 받아 “非時香菓”를 구하러 常世國으로 떠나게 된다. 10여년에 걸친 시련 끝에 田道間守는 잔신히 非時香菓를 구해 가지고 돌

-
- 2) 1943. 2 『旗緣』에 실리고 43. 5 두번째 시집으로 간행, 소위 日帝의 “紀元節을 奉祝하기 위해” 쓴 詩임.
- 3) 『古事記』中卷 垂仁天皇 조, 및 『日本書記』卷6, 垂仁天皇 90年 春三月庚子朔조, 垂仁天皇 90년 田道間守를 常世國(출지 않은나라 필사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10년뒤 (垂仁天皇은 90년에 죽음) 田道間守가 非時香菓를 가지고 들어와 天皇의 무덤앞에서 술피 울다 죽었다는 기록이 있음.

아오지만 그의 복명은 듣지 못한 채 天皇은 그 1년전 續向宮에서 숨을 거둔다. 그리하여 이를 슬퍼한 田道間守는 天皇의 무덤 곁에서 울고 지내다 자진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詩 〈非時香集〉는 이와같이 날조된 『古事記』의 說話を 내용으로 다루어 원래부터 韓民族은 日本의 臣民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內鮮一體”的 펼연성을 神話的으로 合理化시킨 것이다. 이 시의 맨 끝행이 ‘아아 충성스러운 죽음이여 田道間守의 죽음이여’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한민족의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촉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뒤에 “龍／龍／龍은 昇天한다.／우리 東洋의 傳說에서는／새 世界가 창조될 때에는／반드시 龍이 昇天한다……”고 노래하여(〈龍飛御天歌〉) 朝鮮朝의 창업을 읊은 위대한 서사시〈龍飛御天歌〉를 日本 찬가로 패러디한 바 있었던 金鍾漢은 (여기서 우리는 日帝가 國民學校 地理教育에서 韓半島의 地形을 토끼로 日本列島의 地形을 토끼를 잡아먹는 호랑이나 龍으로 묘사했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일찍 〈園丁〉이나 〈風俗〉 따위의 시를 쓰므로써 內鮮一體의 전열에 선다.

詩 〈園丁〉은 상징적인 기법을 빌어 쓴 작품이다. 이 시에서 內鮮一體는 “돌배나무 와 능금”의 접목으로 비유되고 있다. 늙은 〈園丁〉은 “해목은 돌배나무”에 “능금의 어린 쌩”을 접목한다. 이를 지켜보는 원정의 아내는 “그런 일이 성공할 것인지” 회의를 갖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철 쪽 꽃이 賣春을 하고” “버드나무” 역시 정조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접목된 돌배나무는 “二輪半”만에 능금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는 굳이 “돌배나무”와 “능금나무” 가운데 어느 것이 韓國이고 어느 것이 日本인가 따질 필요가 없다. 문제는 능금나무와 돌배나무의 접목 이외에 모든 다른 나무의 주체적 삶은 매춘인 것이며 따라서 곧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신념이다.

한 걸음 더 나가 金鍾漢은 이 작품에서 日帝에 대한 賣國 행위를 순

교자적 소명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예찬한다. 즉 “園丁(내선일체주의 자)”은 죽어버렸지만 그가 시도했던 나무의 接木은 성공하여 “능금의 꽃이 가지에 휘일듯이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內鮮一體의 “歷史的 必然性”과 이를 깨우친 “선각자의 자기 회생”的 이야기를 상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金鍾漢의 신념은 日本人보다 더 철저하게 皇道思想으로 무장된 한국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가령 〈風俗〉과 같은 작품에서 시인은 韓國內에서 번지고 있는 “새로운 한 풍속”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日本 東京의 銀座에서도 京都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성스러운 풍속이라고 한다. “밀폐의 그림 보다 더욱 경건한” 이 새로운 풍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시의 서두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日皇의 송축과 전몰 장병의 명복을 비는 정오의 묵념이다. 正午의 싸이렌이 울리면 “半島의 서울 京城”에서는 日本內에서도 볼 수 없는 한 경건한 순간을 갖게되는데 그 때 모든 사람과 차 그리고 도시 전체는 하나의 심장이 되어 합장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심장이 내선일체를 의미함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한편 朱耀翰은 〈雨後〉에서 “천가지 풀잎 위에 물방울”이 天皇의 빛에 의해서 빛나 무성한 숲들의 웃음꽃이 피는 세계를 노래하였고 李光洙는 “성수무강하옵신 天皇의 은혜”로 “無病息災한 一億國民”과 그리고 “兩後風調”한 농경을 기원하였다.

② 太平洋戰爭의 合理化와 戰意 고취

이 계열에 드는 작품으로는 金東換의 〈米英葬送曲〉(《毎日新報》42. 1. 13), 〈南國에서 오는 배〉(《毎日新報》42. 1. 14), 金岸曙의 〈陸軍紀念日에〉(《毎日新報》42. 3. 10), 金鍾漢의 〈春服〉(《每新》42. 3. 16), 〈合唱にっこて(에 대하여)〉(《國民文學》42. 4), 朱耀翰의 〈聖戰讚歌〉(《每新》42. 12. 8), 『手に手を』(손에 손을 博文書館 43. 7, 제 4회 朝鮮藝術賞文學賞 수상 시

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 金岸曙의 〈新年頌〉(《毎新》44. 1. 4), 金龍濟의 〈秋の囁き〉(가을의 속삭임 《國民文學》42. 11) 와 詩集『報道詩帖』(44. 6) 그리고 〈宣戰の日に〉(선전의 날에), 〈戰場の友へ〉(전장의 친구에게) 등이 수록된 『亞細亞詩集』(제 1 회 國語文藝總督賞 수상)의 대부분의 작품, 李光洙의 〈宣戰大詔〉(《新時代》42. 1) 등이 있다. 이들 시는 ① 太平洋전쟁의 美化 내지 合理化, ② 勝戰에의 기원, ③ 戰意 양양 및 鉅개심의 고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中國의 피를 뺄고 印度의 뼈를 부순 자여
 하와이의 真珠를 빼앗고 필리핀의 아가씨를 범한 자여.
 이제 또 우리 神國을 없이 여겨 엿보는 痴人의 꿈을 보는가,
 그대들 米英帝國主義를 질책하는 심판의 새벽에
 은은한 太平洋의 포성은 최후의 말을 하였구나

아아 聖戰의 깃발이 불꽃을 뿌리며 가는 곳
 아시아 10 억의 잡든 사자가 일어났도다.

.....
 인류를 구하는 神들의 후손.....
 (金龍濟 〈宣戰의 날에〉)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이시는 金龍濟가 天皇의 太平洋戰爭宣言에 감읍하여 쓴 것이다. 이 시에서 金龍濟는 太平洋戰爭을 東洋解放의 聖戰이라고 일컫고 있다. 詩의 내용에 따르면 太平洋戰爭 이란 “米英”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식민지 지배 세력을 아시아로부터 몰아내는 전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대로 日帝의 “大東亞 共榮圈”的 논리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宣戰의 날에〉가 이렇듯 치밀적인 주장을 펴고 있음에 비해 보다 교묘한 표현으로 日帝의 침략전쟁을 美화시킨 그의 다른 작품은 〈가을의 속삭임 (秋の囁き)〉이다.

.....
 또 吉日의 밤이 되면
 새 꼭식으로 빛은 맷을 조출하게 차려 놓고

옛 풍습대로 지내는 安宅 제사에도
 우선 皇軍의 武運長久를 비는 노파들이여.
 차고 맑은 정한수 그릇에 별들이 뜨고
 따뜻한 방에는 아가들이 잠들어 있네.
 가마니를 짜는 긴진 밤의 날, 새끼풀에
 그리운 옛 이야기의 이삭들은 이어가고
 옛 軍談 이야기 책에 비유하여서
 우리 아들들이 軍門에 설 날을 못내 기다리네.
 젊은이에게 지지 않는 늙은이들의 바늘 솜씨여
 저수지의 잉어를 낚는다고 그물을 짜고 있네.

(抄譯, 金龍濟 <가을의 속삭임>)

인용시는 우리의 항토적, 민속적 소재를 빌려 한국민의 전쟁 동원을 촉구한시이다. 표면적으로 이 시가 그리고 있는 것은 어느 吉日날 밤의 우리 농촌 풍경이다. 정한수 한 대접을 떠놓고 安宅 제사를 올리는 할머니가 있고, 가마니를 짜면서 군담 소설을 읽는 사랑방의 남정네가 있으며, 천렵 놀이에 부풀어 그물을 집는 할아버지가 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농촌 풍경 아닌 것이 없지만 시인은 이를 교묘하게 일제의 전쟁 동원으로 귀결시킨다. 즉 安宅 제사를 올리는 할머니의 소망은 “皇軍의 武運長久”이며, 軍談 소설을 읽는 남정네의 소망은 자신의 아들이 커서 그 소설의 용감한 주인공과 같이 皇軍이 되는 것이며, 천렵 놀이를 즐기는老人의 소망은 日皇의 은전을 구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문제성은 다만 그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과 미풍 양속——다시 말해 民族魂 그 자체를 日本에 팔아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도록 글 잇손 위로
 이가티 어마한 생각이 씨윗든가 보뇨
 八轂을 집으로 하고
 天下의 뜻과 바다와 섬들을
 萬民이 즐거이 사는 한 집으로 하고
 萬邦으로 하여금 자리를 업게 하고
 모든 거래를 한 빗초로 光被하기 위해서

劍을 잡고 꾀 뿌리고 목숨 바치려는
 이러한 생각의 胚胎가
 입대도록 씨움이 잇섯느뇨

아 위대하다. 이 날이어
 어마어마하다 이 부름이어
 福되어라 이 생각이어
 太陽의 깃발 앉서는 곳에
 차르나니 十億의 大東亞 沙汰와 沙汰
 (朱耀翰 〈聖戰讚歌〉)

인용시 역시 그 제목이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太平洋戰爭의 정의로
 움을 친양한 것이다. 朱耀翰 의하면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한 자들은
 “징기스칸”과 “모하멧”的 둘인데(제 2연) “그러나 그들의 天國조차 死
 後이엇을 分／或은 學問으로서，或은 敎儀으로서／人類는 한 집안이
 라”고 외쳤던 것에 반해 “영원히 젊은 大地 위에 現實 우에／불로 단련
 된 眞金의 平和를 세우시려는” 者는 오직 “大日本帝國”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太平洋戰爭은 “모든 나라의 매인 자를 풀어주며／모든 나라의
 놀린자를 이르키며／모든 나라의 앗긴 것을 찾아주는” 장대한 구상의
 聖戰이 되는 것이다.

① 물너가라 죠쳐내라 暴惡米英을
 千里沃野 比律賓도 東洋것이요
 離迦나신 印度성도 東洋것이라.
 주인두고 너이들은 웨들어왔노
 (金東煥 〈米英葬送曲〉)

② 「米國과 英國을 쳐라」
 하옵신 大詔를 나리시다
 十二月 八日날 해뜰 때
 빛나는 소화 16年

하와이 眞珠灣에

적함을 빼리는 皇軍의 첫 벼려,

.....

아시아의 聖域은 원래

天孫民族이 번영한 基業

앵글의 발에 더럽힌지 二百年

우리 임금 이제 光復 선하시네

(李光洙 〈宣戰大詔〉 林鍾國譯 인용)

③ 大東亞의 聖域에서

사나운 앵글로 색소의 力을 끌어내고

.....

皇國을 核心으로 共存共榮의 새로운 秩序를 세우려는

大東亞 戰爭

이야 말로 東亞 各民族의 解放의 聖戰이오……

(金海剛 〈印度民衆에게〉)

金東煥, 李光洙, 金海剛의 시들 중에서 각각 한편 씩을 인용해 보았다. ①은 연합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물론 인용된 다른 시들과 같다. 그러나 좀 특이한 형식은 민요조 혹은 唱歌調(8.5 조) 울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민요시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요적 울격으로 쓰여진 서정시의 일종이다. 그것은 20년대 한국 시단에서 한 유형을 이룬 바 있는데 민요가 본질적으로 가창, 음송을 지향하듯 이 역시 노래로 불려질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20년대 민요시들의 상당 수가 노래로 불려진 바 있다. “비상시국의” 시가 융혼 기상의 “군가식”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金岸曙의 주장도 있었지만⁴⁾ 당시의 일제 어용 시인들은 金東煥의 〈米英幕送曲〉처럼 이렇듯 국민 가창을 염두에 두고 시를

4) 金岸曙 「新在文壇의 展望」 《毎日新聞》 1939. 1. 4~6. “現下는 非常時局이외다. 詩歌는 가장 날카롭게 그 時代와 感情을 바다들이는 것이니 엇더케 혼자 이 非常時局에서 써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암호로의 詩歌는 가장 濃厚하게 軍歌의으로도 썩썩하고 우렁찬 傾向을 나타내일 줄입니다. ……時局에 마초아 썩썩한 노래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것분일 이 외다.”

셨던 것이다. 당시 金東煥은 《毎日新報》지 상에 민요조, 또는 창가조 읊조의 전쟁 동원시를 다수 발표한 바 있다.⁵⁾

李光洙나 金海剛의 詩들은 그 발상이나 주제 의식 그리고 언어 표현 등이 비슷하다. 이들 시의 내용은 대체로 아시아의 盟主는 日本이라는 것, 太平洋戰爭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 韓民族은 天孫民族인 日本民族과 “同祖同根”이며 따라서 天皇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 등이다. 이는 두 말할 것 없이 日帝의 “大東亞 共榮”的 논리와 韓半島의 일본 복속의 명분을 대변한 것이다. 특히 金海剛의 〈印度 民衆에게〉는 2회에 걸쳐 연재된 長詩로서 印度가 英國의 식민지로 수난 당한 역사를 묘사하고 印度의 자유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자는 오직 日本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시들은 모두 직접적이고 선동적인 언어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③ 勝戰 축하——기념시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서는 金岸曙의 〈싱가포어 뿐이라〉(《春秋》42.3), 金龍濟의 〈눈물 아름다워라〉(《春秋》42.3), 金東煥의 〈比律賓 하늘 우에 日章旗〉(《每新》42.1.10), 朱耀翰의 〈마음 속의 싱가포우르〉(《新時代》42.3), 〈싱가풀 陷落歌〉(《每新》42.2.18), 盧天命의 〈노래하자 이 날을〉(《春秋》)42.3) 등이 있다.

① 싱가풀 陷落의 뉴——쓰를 듣는 밤,
한잔의 술이 없이도 醉하는 마음이여……

英米가 城門을 열어 항복하는 오늘
싱가풀의 거리 거리엔 祖國의 旗八발이
물결치리

5) 〈比律賓 하늘 우에 日章旗〉(《毎日新報》1942.1.11), 〈大戰과 半島兒童〉(《毎日新報》1942.1.12), 〈米英葬送曲〉(《毎日新報》1942.1.14) 등이 그 예로서, 7.5調, 8.5調의 창가 혹은 민요조 읊격을 따르고 있다.

.....
 亞細亞 民族의 歷史的인 이 날——
 南洋群島의 主인이 박귀는 이 날을
 雄壯하게 記念하자 잔치하자.
 (盧天命 <노래하자 이 날을>)

② 집보다 짐보구나 오늘이 날은
 比律賓 하늘우에 日章旗날려
 四百餘年 긴恥辱 피로쓰스니
 太平洋에 새날이 멀지 안쿠나
 (金東煥 <比律賓 하늘 우에 日章旗>)

日本은 채 전열을 갖추지 못한 연합군에게 선전 포고도 없이 공격을 가한 까닭으로 전쟁 초기에는 국부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국지전의 승리에 도취했던 日帝는 이 땅의 시인들에게 승전 축하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쟁가포르의 함락과 마닐라의 함락이다. 쟁가포르가 함락되자 朴克采는 「新嘉坡 陷落의 世界史의 意義」를 쓰고⁶⁾ 《春秋》를 비롯한 각 잡지에서는 특집을 꾸몄다. 《春秋》 1942년 3월호엔 쟁가포르 함락 승전 시들이 게재되었는데 앞서 열거한 시들은 여기에 동원된 작품들이다. 卢天命은 이 시에서 “英米가 城門을 열어 항복한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 “제일 오래 농은 술을 꺼내 오자”고 웨치고 “쟁가풀 거리에 祖國의 旗人발이 물결치는” 감동을 노래하였다. 한편 金岸曜은 “높으신 님(天皇——필자 註)의 뜻을 받아” 잡은 “正義의 칼” 앞에 “惡德한 大英帝國과 쟁가포르가 떨어지는 것을”이 날 비로 소 보고” “積惡”은 기필코 “망하리라”는 신념을 재다짐한다. 나아가서 그는 어찌 쟁가포어 만이 함락할 것인가고 반문해 본다. 金龍濟 역시 “大東亞 天地에 偉大한 希望이 불타는 이 날／ 해방된 人類의 鄉愁에 것

6) 朴克采 「新嘉坡 陷落의 世界史의 意義」(《春秋》 1942. 3), “新嘉坡 陷落은 첫째로 英米勢力이 東亞로부터의 最後驅逐을 約束하여 大東亞共榮圈의 理想이 實現過程으로 突入하는 까닭에 世界史의 意味를 가지게” 된다고 함

는 눈물은 아름다워라／大陸도 大洋도 十億의 兄弟들도 감격에 우는”
“환희”를 고백하고 있다.

④ 戰爭英雄에 대한 찬양——讚歌

i) 계열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金岸曜의 〈아아 山本元帥〉(《每新》43. 6. 6), 〈님 따라 나서자〉(《每新》44. 12. 7), 徐廷柱의 〈無題〉(《國民文學》44. 8), 金東煥의 〈嗚呼 大平平洋上의 軍神〉(《每新》42. 3. 9), 金海剛의 〈돌아오지 않는 아홉 將土〉(《每新》42. 3. 13), 李光洙의 〈眞珠灣의 九軍神〉(《新時代》42. 4), 朱耀翰의 〈破甲爆雷〉(《每新》45. 1. 29) 등이 있다.

① 「야마모도 提督이 돌아가셨다.」

맑은 하늘 벼락가 설은 이 寄別
북바치는 痛哭을 뉘리禁하라
쓸온피는 우아래 원몸을 뚫고
불죽불죽 헤지는 울분의 주역
無道한 저米英을 그저들것가
이不義를 부시자 땄려 눕히자
(金岸曜 〈아아 山本元帥〉)

② 九段(靖國神社가 있는 地名——필자 註)의 하늘 높이 향기 뿜게 하여라.

어머니시여, 첨첩 구름이나, 日月이나, 星辰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살아 있는 몸 불명어리가 되어 숨이 끊어지리니

.....

어머니시여 저 곳입니다. 당신이 낳으신 내 동포의 영혼이 모두 돌아 옴은
았조로부터, 마킹다와로부터, 싸이판으로부터

전원 전사하여 돌아온은

저 곳입니다. 저 곳입니다. 아아 감당 못할 빛에 빛을 더하여

어머님이시여 울부짖는 저 곳입니다.

.....

아아, 마음 즐겁도다. 마음 즐겁도다.

역사의 祭物은 내 아니고 뉘 있으리.

어머님이시여 나도 또한 창을 들고 일어나

떠나겠습니다.

싸이판으로,

마마킹다와라로,

앗쓰로,

(徐廷柱 抄譯 〈無題〉.)

③ 機雷와 水雷와 爆藥 여러 千 수배를 실어다 바다에 살고
좌우의 砲臺에는 高射砲와 地雷를 겹겹히 파묻고서
나는 새, 기는 고기조차 드나들지 못하게 다쳐 눈 眞珠灣
한 가운데로

白晝에 特殊 潛航艇을 이끌고 突入하는 日東의 勇士 잇음을
「루즈벨트」여 움엔들 생각해 보았는가
여러 百億 달라의 富國을 기우리고
亞米利 四十八州 향 속에서 나는 광철이란 철강을
모조리 파내서
여러 萬噸 여러 수십 쌍 만드려 바다에 죄워 노을 제
그것이 하루 아침 日東男兒의 육탄에 부서질 줄을
「루즈벨트」여 움엔들 생각해 보았는가.

(金東煥 〈嗚呼 太平洋上의 軍呼〉)

① 은 연합군 비행편대의 요격을 받고 전사한 日本 海軍提督 야마모도(山本)元帥의 國葬日에 쓰여진 추도시이다.⁷⁾ “提督은 가셨으나 貴한 精神은／ 언제나 一億의 마음을 밝혀／ 저 米英을 뿐만 아니라 높히일 것을”
다짐한 忠誠心이 잘 표현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이 시는 제 1편의 야마모도의 戰死에 대한 울분과 애도, 제 2편의 야마모도 정신에 대한 찬양,
제 3편의 자신의 결의 등 교파서적 3단 구성을 취한다. 한편 형식상
으로는 民謡詩의 3音步 律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누차 주장
한 바와 같이 “國民詩”的 民衆性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는

7) 1943년 4월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山本五十六) 海軍大將이 작전
지휘중 미군의 공격을 받고 탑승기에서 사망함. 5월 21일 원수로 추서
되고 6월 5일 국장.

일찍 어떤 글에서 詩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民謡와 時調의 形式을 빌려야 하며 “현하는 비상시국”인 까닭에 詩 또한 “가장 농후하게 軍歌的으로” 씩씩한 기상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② 는 達城靜雄이란 創氏名으로 발표된 徐廷柱의 〈無題〉이다. 그 副題가 “싸이판島 全員戰死의 英靈을 맞이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달 전 美國의 싸이판 島 공격으로 불사한 日本軍 英靈에 대한 추도시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두가지 관점에서 “國民詩”的 전형성을 보여준다. 첫째는 주제면에서 철저하게 皇道精神과 日帝軍國主義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첫행에서 靖國神社(일제 군국주의 聖地로서 전 불장병의 위패가 모셔진 神社)의 성스러움을 묘사한 이 시는 日帝 戰犯者들의 넋이 日月星辰 보다도 더 고귀하고 그러한 까닭에 그들의 죽음이 온 누리의 光明이 되는 기쁨을 노래한다. 그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아니면 歷史의 祭物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화자가 스스로 창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 든다는 결말 부분이다. 둘째로 이 시는 日本詩의 形式 그대로 “反歌”를 부치고 있다는 점이다. 日本의 전통 시에서는 한편의 시가 쓰여지고 난 뒤——마치 그리스 비극의 합창가처럼——이 시에 진출된 내용을 압축 정리하여 에필로그 비슷하게 후렴 커를 부침으로서 形式上의 완결을 짜하는 바, 이를 “反歌”라고 한다. 徐廷柱의 〈無題〉에서는 다음과 같은 “反歌”가 붙어 있다.

反歌

아아 마음 출겁도다. 마음 출겁도다.

오가는 바람에 땀을 스치며

나, 숨 쉬면서 皇國에 있음이여

③ 은 총 4연으로 되어 있는 長詩 〈嗚呼 太平洋上의 軍神〉의 제 1련이다. 그 副題가 “特殊潛航艇의 不歸의 勇士의 靈前에”로 되어 있고 亞米利, 真珠灣, 루즈벨트 등 고유명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보다 석 달 전 즉 1941년 12월 8일에 있었던 日本軍의 真珠灣 기습을 作品

으로 쓴 것이 분명하다. 무명전사의 무용담을 美化시킴으로서 이 시인이 의도코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金岸曙는 전쟁영웅 金原軍曹의 명복을 비는 〈님 따라 나서자〉(《每新》44. 12. 7)를 썼다.

⑤ 징병 독려 및 자원입대 강요

이 계열에 드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李光洙의 〈朝鮮의 學徒여〉(《每新》43. 11. 4), 朱耀翰의 〈아침 햇발〉(《每新》43. 5. 13)〈大君に (페하께)〉, 〈詩集『손에 손울』에 수록), 金八峯의 〈나도 가겠습니다〉, 〈가라! 軍旗 아래로 어버이들을 대신해서〉이상 (《每新》43. 11. 5), 金東煥의 〈大戰과 半島兒童〉(《每新》42. 1. 12), 金尚鎔의 〈님의 부르심을 바슬고서〉(《每新》43. 8. 4), 盧天命의 〈婦人勤勞隊〉(《每新》42. 3. 4), 〈친 비둘기를 날려라〉(《每新》42. 12. 8), 毛允淑의 〈아가 너는〉(《每新》43. 5. 27), 異河潤의 〈님의 부르심을 바슬고서〉(《每新》43. 8. 8), 金鍾漢의 〈幼年〉(《國民文學》42. 7), 徐廷柱의 〈航空日に (항공일에)〉(《國民文學》43. 10) 등이 있다.

①.....

마늘이나 파 고추를 먹던
기름 떼 묻은 흰옷의
뜨겁더 뜨거운 겨례가
산비둘기 우는 황토길을
가고 가며서 물드린 파란 하늘이로다.
.....

아아 날리로다. 날리로다.
부통부통 온몸을 울리며
지나가 버린 것
푸르지 걸린 하늘 가운데를
힘차게 날자 내 평소의 바람같이
(抄譯 徐廷柱 〈航空日(항공일에)〉)

②.....

이윽고 10년이 흐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전투기를 탈 것이 틀림 없겠지요
 하늘 끝을——아가는
 어젯 밤 꿈 속에 올라갔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 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늘을
 너무 높이 날아버려
 푸른 하늘 한 가운데 오줌을 누었습니다.

(抄譯 金鍾漢 〈幼年〉)

③ 그대는 벌서 志願하였는가

——特別 志願兵을
 내일 志願하랴는가
 ——特別志願兵을

工夫야 언제나 못하리

男兒 한번 世上에 나
 이런 好機 또 잇언가
 一生一死는 저마다 다 잇는 것
 爲國忠節은 그대만의 幸運
 가라 朝鮮學徒여
 三千萬同鄉人의 암잡이 되라

누이들의 萬人針을 바다적고 가라
 (李光洙 〈朝鮮의 學徒여〉)

④ 牛島의 아우야 아들아 나오라,

님께서 부르신다. 東亞日萬의 千倍의 無數한 前進의 한 部隊로 너를 부르신다.
 (金基鎮 〈님의 부르심을 바眚고서〉)

⑤ 나아가는 너의들 隊伍에 地軸이 울리고
 福樂의 彼岸으로 旗幡 날린다.

세 우짖고 草木조차 환희를 속삭인다.
 決意와 힘에 넘치는 너의 얼굴에

아츰 태양은 더 情다이 미소하도다.
 (金尚鎔 〈님의 부르심을 바뜰고서〉)

⑥ 짚은 意氣 더욱 복도다
 大東亞를 세우자, 世界를 바로잡자.
 邪惡을 끗지르고 正義를 위하야
 거룩한 싸움터에 몸과 마음 고히 바치자.
 (異河潤 〈님의 부르심을 바뜰고서〉)

⑦ 가라! 아들아 軍旗 아래로!
 神國日本의 皇民이 되엇거든
 東亞 千億의 前衛가 아니나
 不滅의 意氣 必勝의信念이 베 것 이로다.
 (金八峰 〈가라! 軍旗 아래로〉)

⑧.....
 한չ 두չ 武運을 빌며
 바늘을 읊기는 손 든든도하다.
 日本의 名譽를 걸고 나아간이여
 훌륭히 싸워주, 功을 세워주,
 나라를 생각하는 누나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성은
 오늘도 山만한 軍脈 위에 뜻으로 피엿네
 (龐天命 〈婦人勤勞隊〉)

이 땅에 징병제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것은 1943년의 일이다. 이 해 3월 1일에 징병제가 공표되고 10월 20일에는 學兵制가 실시되었으며 그 이듬 해(44년) 2월 8일엔 전면적인 징용제가 발동 되었다. 이와 때를 맞추어 모든 발표매체와 文人에게도 징병 징용에 대해서 선전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예컨대 유일하게 발간되던 『毎日新報』에는 “님의 브르심을 뒷뜰고서”라는 고정 난이 생겨서 징병 징용을 고취하는 詩와 그림이 연일 게재 되었으며 그외 각 잡지들도 여러가지 형식의 특집을 꾸며 이에 앞장을 서게 했다. 앞에서 인용한 異河潤, 金尚鎔, 金基鎮 등의 같은 제목의 시들도 이러한 특집란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이다.

徐廷柱의 〈航空日에〉는 空軍出征에 대한 선망이 형상화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이 작품은 “징병”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문학적 장치가 바로 이 시의 교묘한 점이다. 마늘, 과 고추 따위나 먹고 기름 때 묻힌 흰옷(“흰옷”이라는 알레고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이나 결친 이 불쌍한 겨례가 언제 하늘을 날아 볼 수 있겠는가——그들은 다만 산비들기 우는 황토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불쌍한 겨례의 꿈이 日帝에 의해서 이 투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최면은 독자로 하여금 日帝의 空軍에 지원하도록 간접적으로, 그러나 보다 심리적으로 권유하는 효과를 갖는다.

②는 ①과 달리 처음부터 공개적이고도 직접적으로 學兵의 지원 입대를 선동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성을 보인다.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를 지키는 “聖戰”인 까닭에 “日本男兒”的 끓는 피로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 공부보다는 日本를 지키는 일이 더욱 가치 있다는 것, 孝보다는 忠이 더 앞 선다는 것 따위의 내용이 日本 국책의 논리로 정연하게 진술되어 있다.

④⑤⑥⑦은 《毎日新報》의 고정란에 발표된 같은 제목의 시들이다. ④에서 金基鎮은 “皇軍”이 되는 영광을 노래하였고, ⑤에서 金尚鎬은 일군입대로 “千千萬代에 남을 명예”를 기리고 있으며 ⑥에서 異河潤은 大東亞의 전설을 송축하고 있다. ⑦에서 金八峰은 대륙 침략의 전위가 되는 皇恩을 감사하고 있다. ⑧은 윗 시들과는 좀 다르게 婦人勤勞隊를 독려한 작품이다. 金東煥은 일찌기 〈軍服 입는 각씨네〉와 같은 작품에서 한국 여성의 근로봉사——나아가서는 挺身隊의 투신을 찬양한 바 있지만 龐天命 역시 같은 시를 썼다. 이 시는 軍服을 짓기 위해 동원된 여성의 보람과 영광을 묘사해 보여주고 있다.

⑨는 海軍記念日을 맞아 海軍 지원 입대를 권유한 시이다. 설화체 형식을 지닌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네 아버지는 고기잡이 어부/

네兄은 오랜 등대적이”라는 서두의 진술에서 설명되듯이 시인은 바닷가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미역과 조개를 먹고 해조음을 들으며 자라는 어린 소년에게 어부로서의 꿈 보다는 “帝國” 海軍의 용사가 되는 꿈을 가지라고 권유한다.

3

앞에서 우리는 40년대 日帝의 御用詩——“國民詩”的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른 측면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편의상 우리는 그것을 言語, 形式, 素材, 表現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言語 媒體에 있어서 日帝 御用詩는 日本語로 표기된 것과 한국어로 표기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日帝의 궁국 목적은 완전한 日本語詩의 창작이었지만 한국 대중의 일본어 보급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제한된 한국어 표기 일제 어용시를 병행했던 것이다. 그것은 신문에 발표된 시들이 거의 한국어 표기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지식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순수 문예지⁸⁾ 《國民文學》”에 실린 시들이 모두 日本語로 되어 있던 것에서도 증명이 된다. 《國民文學》 창간 1주년기념 좌담회나 기타의 글들에서도 “국어”(日本語 諸字 註) 사용이 조선 “國民文學”수립의 최대 과제임을 공언하고 있다.

둘째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日帝御用詩들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自由詩나 散文詩 같은 것은 近代詩의 일반적 유형이니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특히 주목 되는 것은 日本의 “和歌” 및 우리의 唱歌, 時調의 형식과 民謡調 律格을 차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정치적 의미에서의 內鮮一體 뿐만 아니라 文化的 의미에서의 內鮮

8) 《國民文學》誌 創刊辭에서

一體, 즉 우리 民族魂 그 자체의 말살을 기도한 책략이라 할 수 있다.
民族魂이란 文化 樣式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大君に同じ捧ぐる
誠にも銃取る肩の
身の廣きかな
(朱耀翰 〈大君上〉『手に手を』수록)
(천황 폐하 한가지 받드는
정성이련만 총을 잡은 어깨엔
보람이 차는 것은)

윗 시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和歌”的 운율을 밟고 있다. 그러나 보다 완성된 和歌 形式은 李光洙에게서 발견된다. 〈元旦〉(《新時代》42. 1), 〈折りにふれこ歌へる〉(수시로 부른 노래《東洋之光》39. 2)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한편 창가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는 앞에서 인용한 金岸曙의 〈아아 山本元帥〉, 金東煥의 〈比律賓 하늘의 日章旗〉, 〈米英葬送曲〉을 비롯하여 같은 金東煥의 〈大戰과 半島兒童〉 〈南國에서 오는 배〉(《毎新》42. 1. 15), 金泰午의 〈횃불을 든 少年〉, (《毎新》42. 3. 2), 〈東洋 平和의 門이 열리다〉(《毎新》42. 2. 25), 朱耀翰의 〈아침 햇발〉 등이 있고 時調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는 朱耀翰의 〈東洋의 새봄〉(《毎日新聞》42. 2. 23) 등이 있다. “國民詩”가 웅혼한 기상의 군가식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金岸曙의 주장이었지만 동시에 日帝御用詩人們은 실제로 國民歌唱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쓰거나 그것이 歌謡로 불려지기를 기대하였다. 李光洙의 〈志願兵壯行歌〉(《三千里》39. 12), 朱耀翰의 〈勝利의 太平洋〉, 〈당기〉(《春秋》42. 4), 〈가자 어서 가〉, 〈오는 봄 가는 봄〉, 〈고향의 집〉, 〈살으리랏다〉, 〈生日〉, 〈結婚式〉, 〈돌맞이〉(이상《三千里》41. 9) 등이 그러한 예이다. 金泰午와 朱耀翰의 唱歌를 인용해 보겠다.

太平洋의 흰 물결이 넘노는 섬에

벗나도다. 日章旗 회날린고나
 黎明의 종소리도 울리어오고
 솟는 해여 새롭다 아름다워라.
 (金泰午 〈東洋平和의 門이 열리다〉.)

나라에 부름바나 가실적에는
 붉은 당기 선물로 보내오리다.
 품 안에 지나시고 쌈터에서면
 총칼이 펴부어도 마을리 없오
 (宋耀翰 〈당기〉 (歌謡란 副題가 붙어 있음))

셋째는 시의 소재면이다. 그 어떤 것이든 소재가 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歷史, 神話를 도용하고 우리의 미풍 양속을 소위 皇道精神에 접목시킴으로서 한민족의 주체성을 근원적으로 말살하려 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예를 든 바, 金龍濟의 〈敍事詩 御東征〉이 神武天皇의 神話의 이야기를 빌려 太平洋의 盟主로서 日本를 합리화하려고 했다든지, 같은 시인의 〈非時香菓〉가 날조된 日本書記의 설화를 빌려 韓民族의 일본 복속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든지, 金東煥의 〈龍飛御天歌〉가 同名의 朝鮮朝 서사시 〈龍飛御天歌〉를 폐려디하여 한民族의 자존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려 했던 것 등이 그렇다. 한편 金龍濟의 〈가을의 속삭임〉, 徐廷柱의 〈航空의 날에〉 역시 우리의 향토적 삶, 民俗的生活을 셋팅으로 삼아 韩民族의 日本化를 도모하였다.

네째는 표현 기법이다. 日本의 국책을 시로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메시지 전달이 직접적 선동적인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간접적 상징적 경우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文學的으로 성공할 수 있었음은 당연하다. 대체로 전자에 해당되는 시들은 징병, 징용을 권유하는 시, 전쟁 영웅을 찬양하는 시 등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시들은 皇道精神과 內鮮一體를 고창한 시들이다. 후자의 시들은 전달코자 하는 일체의 국책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것을 문학 작품 속에서 암시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독자들을 무의식적으로 세

뇌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이와같은 수법은——일찌기 엥겔스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있어서 이례율로기의 효과적 전달방법이 직접적인 노출이아니라 은폐에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⁹⁾——日帝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는 한국 대중들을 파고 드는데 전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후자의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 楊明文의 〈富士山에 부치다〉 金龍濟의 〈敍事詩御東征〉, 〈非時香菓〉, 徐廷柱의 〈航空의 날에〉, 金鍾漢의 〈園丁〉, 〈幼年〉 등이다. 예를 들어 金鍾漢의 〈園丁〉에는 “內鮮一體”나 “皇道思想”을 고취하는 직접적 진술이 한 군데도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배 나무”와 “능금나무”的 접목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그 의도하는 바를 십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행 글라이더를 갖고 노는 소년을 상징시켜 공군 지원 입대를 부추긴 〈幼年〉이나 富士山의 성스런움을 부각시킴으로서 한민족의 정신적 자주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富士山에 부치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9) F. Engels 가 Margaret Harkness에게 보낸 서한.